

107호 2026 10월 15일

발행인: 김화룡 / 편집인: 김태식 / 편집: 박시은 / 편집디자인: 실크로드 인도네시아

Tel. : 021-5010-4614/15 E-mail : kogaindonesia1@gmail.com 광고문의 : 0821 1122 8827
Add: komp. Graha Cempaka Mas Blok A No. 11, Jl. Letjen Suprpto, Jakarta Pusat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코가

Vol. 107



오롬 (OROM) 컨설팅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021-45856898/4207/4911/4910
법인설립 (PMA & PMDN)
SUHADA : 0812-97598638
WINDA : 0811-8821462
visa.orum@gmail.com
www.orum.co.id indocity1991

2027년
카렌다 제작
021 5010 4614/5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등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KOWEB INDONESIA
**홈페이지
제작 합니다**
0812 9354 7052
yoon@koweb-indonesia.com
카카오 ID : rickyoon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인니 바빔 외국계 봉제업체, 경영진 돌연 이탈... 근로자 천여명 방치



▲김리 인도네시아(PT Ghim Li Indonesia) 근로자들이 리아우 제도 바빔 투나스(Tunas) 산업단지 내 봉제 부서 공장에서 재봉틀 등 회사 자산을 지키기 위해 공장에 남아있는 모습(사진=자카르타포스트/ FSPMI 바빔 제공)

외국계 투자기업이 생산을 중단한 뒤 경영진이 근로자들만 남겨둔 채 회사를 떠나는 사례가 인도네시아 리아우제도 바빔(Batam)에서 또 발생했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봉제업체 김리(PT Ghim Li)의 경영진이 돌연 자리를 비우면서 근로자 1,025명이 임금과 보상 문제에 직면했다. 회사는 지난 8월 초 생산을 중단했으며, 근로자들은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18일 바빔 시의회 청사를 찾아 항의했다.

인도네시아금속노동조합연맹(FSPMI) 리아우제도 지부의 수쁘랍또 위원장은 이 같은 근로자 방치 사례가 바빔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13년간 최소 6개 기업이 생산을 중단한 뒤 이사회와 경영진이 회사를 떠나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김리 사태는 당초 매월 7일 지급되던 임금이 지난 8월 7일 지급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회사의 총괄책임자와 경

영진이 바빔을 떠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근로자들의 우려가 커졌다.

수쁘랍또 위원장은 15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통상 매월 7일 지급되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총괄책임자와 경영진이 바빔을 떠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공장이 아무런 설명 없이 방치된 상태로 운영 상황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리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 아디다스 등 브랜드 의류를 봉제하는 생산기지로 운영돼 왔다. 전체 근로자 1,025명 가운데 약 80%인 700명가량은 10~15년의 근속기간을 가진 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은 보상을 받기 전 회사 자산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장에 남아 재봉틀 등 회사 자산을 지키고 있다.

금속노동조합이 인도네시아 법무부 자료를 추적한 결과 회사의 투자 지위와 법적 주소가 갑자기 변경된 것

로 나타났다. 김리의 회사 지위는 지난 8월 5일,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외국인투자기업(PMA)에서 내국인투자기업(PMDN)으로 변경됐으며, 법적 주소도 바빔에서 서부자바브까지로 변경된 것이다.

수쁘랍또 위원장은 “법무부에 등록된 투자 지위가 갑자기 PMA에서 PMDN으로 변경됐고 법적 주소도 이전됐다. 이러한 변화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김리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외국계 기업의 사업장 방치가 반복되는 배경으로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 변화도 지적했다.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를 떠나 캄보디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사업·투자 여건이 더 나은 국가로 투자를 이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동조합(FSPMI)은 바빔시 정부와 바빔 자유무역지대 관리청(BP Batam), 바빔 시의회가 김리(Ghim Li)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정부가 대주주를 소환해 책임을 물을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업이 갑자기 사업장을 떠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쁘랍또 위원장은 “기업이 도주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돈이 남아 있도록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빔의 섬유·의류업체에서는 글로벌 및 국내 경기 압박으로 대규모 해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 바빔지부의 라프끼 라시드 위원장은 국내 의류산업이 중고 의

류의 무분별한 수입과 중국산 저가 섬유제품, 소비자 구매력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근로자의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효율화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면, 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기업의 능력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기 보다는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아우제도 노동이주국의 디끼 위자야 국장은 당국이 김리 인도네시아 경영진을 소환해 상황을 확인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새로운 경영진을 만나지 못했으며, 경영진이 바빔을 떠난 이유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디끼 국장은 “만일 실제로 폐업이 진행된다면 우선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빔 시의회와 노동 당국 감독관들은 김리 인도네시아 경영진을 공식 소환할 예정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사양 산업 아니다” ... 프라보워 인니 대통령, 수출 의류 ‘부가가치세 손질’·구조조정 특명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섬유·의류(TPT)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용 섬유 부가가치세(PPN) 체계 재검토와 한계 기업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아이틀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침을 전하며, 재무부를 중심으로 수출지향형 섬유 및 의류에 적용되는 PPN 규정을 전면 재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절별 수요 변동이 큰 의류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계약직 노동자(PKWT) 및 아



웃소싱 활용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부펀드 다난타라(Danantara)에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섬유 기업들의 정상화 절차를 신속히 매듭지을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국내총생

산(GDP)의 약 0.97%를 차지하고 400만 명의 고용과 연간 약 120억 달러의 수출을 견인하는 섬유 산업이 결코 ‘사양 산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세청을 통해 국내 제조 생태계를 고탄하는 의류 덩핑 수입을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금융권과 연계해 섬유 기업의 신규 재투자 및 운영자금 지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원문

출처:ekonomi.bisnis.com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34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 +62 21 440 3926
F. +62 21 440 3944

sales@dongjung.net
bhjangjkt@gmail.com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인니 신임 재무장관, 세금 환급 요건 충족 기업에 세금 환급 약속



▲김리 인도네시아(PT Ghim Li Indonesia) 근로자들이 리아우 제도 바탐 투나스(Tunas) 산업단지 내 봉제 부서 공장에서 재봉틀 등 회사 자산을 지키기 위해 공장에 남아있는 모습(사진=자카르타포스트/ FSPMI 바탐 제공)

인도네시아 신임 재무장관 수아하실 나자라는 기업이 법적으로 환급 요건을 충족한 초과 납부 세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수아하실 18일 기자회견

에서 “기업의 환급받을 권리가 맞다면 환급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국세청(DJP)이 현행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장 비모 위자얀 포에게 세금 환급 관리 개선

을 지시했으며, 기업들이 환급 절차와 적용 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다만 경제 주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세청은 규정에 따라 환급을 관리하고 있지만, 모든 경제 주체가 환급금을 기존 규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아하실 장관의 발언은 최근 기업단체들이 초과 납부 세금 환급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나왔다. 기업들은 환급이 지연될 경우 현금흐름이 악화돼 운영과 투자,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 회장 신타 캄다니는 17

일 쏘빠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수아하실 장관의 전임자인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임 기간인 지난 1년간 세금 환급 정책이 엄격해지면서 기업들의 운영과 확장 계획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세금 환급은 기업 운영에 중요한 현금이기 때문에 환급 시점에 대한 확실성이 기업의 유동성 관리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 회장 아닌디아 노브얀 바끄리는 지난 15일 재무부에서 뿌르바야 전 장관과 수아하실 장관의 인수인계식이 열린 뒤 기자들에게 새 재무장관이 경제 안정과 성장을 균형 있게 추진해 시장의 신뢰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공회의소는 조만간 수아하실 장관을 만나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재 기업들의 경영 여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비모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국세청이 초과 납부 세

금 환급을 보류하고 있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그는 환급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납세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환급을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이며 선별적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 규정 28/2026호에 따르면 초과 납부 세금의 사전 환급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와 저위험 과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검토한 뒤 사전 환급 여부를 결정하며, 일부 납세자의 경우 신고 기한 준수, 체납 세금 유무, 외부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제출 여부 등이 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제107회 제주 전국체육대회 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 내달 7일 열려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는 오는 10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인도네시아 선수단의 선전과 안전한 대회 참가를 기원하기 위한 출정식을 개최한다.

이번 출정식은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와 임원들을 격려하고, 재외동포 선수단의 힘찬 출발을 교민 사회와 함께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리며, 재인도네시아 선수단은 현지 교민 사회의 응원 속에서 각 종목에 출전해 기

량을 겨룰 예정이다.

■ 행사 개요

행사명: 제107회 제주 전국체육대회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

일시: 2026년 10월 7일(수) 오후 3시 30분

장소: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1층 대강당

주최: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문의 및 연락처: 김중희 사무총장 (0815-1902-0341)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는 이번 출정식을 통해 선수단의 사기를 북돋우고 성공적인 대회 참가를 다짐할 계획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400만 고용’ 인니 섬유 산업 살린다... 국부펀드 다난타라, 상·하공정 통합 국영기업 신설 추진

인도네시아 투자관리청(BPM Danantara)이 침체된 섬유 산업의 부활을 위해 한 산업단지 내에서 원자재(상공정)부터 완제품(하공정)까지 아우르는 신규 국영 섬유기업(BUMN) 설립을 공식화했다. 로산 루슬라니(Rosan Roeslani) 다난타라 최고경영자(CEO)는 22일 자카르타 대통령령에서 열린 각료회의 후, 기존 부실기업에 단순히 자금을 수혈하는 대신 한 단지 내에 집적화된 생태계를 구축하는 독자 법인을 신설하고 기존 섬유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 원단, 염색·가공 등 취약한 가치사슬(Value chain)을 보완하기 위해 최대 6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초기 투자금과 출범 시기는 다난타라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섬유·제품 산업은 5.6%, 피혁 및 신발 산업은 8.25%의 성장률을 기록해 국가 전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어, 이번 통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공급망 단절을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문 출처: <https://ekonomi.bisnis.com>



▲아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 로산 로슬라니(Rosan Roeslani) 다난타라(Danantara) CEO, 도니 오스카리아(Dony Oskaria) 다난타라 COO가 화요일(2026년 9월 22일) 대통령령 단에서 섬유 및 섬유 제품(TPT) 산업을 논의하기 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 주재 내각 수석회의(ratas)를 마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대통령실 공보실(BPMI Setpres)



인도네시아 스크린 골프 1등 설치 업체

설치업체 : 신발, 의류공장 기숙사 / 탄광, 발전소 현장사무소 / 개인주택 / 고급별장 / 아파트, (영업용) 루프, 대형빌딩, 백화점

착한가격/완벽한 시공/신속한 A/S

인니 최초 스크린골프(16년차)시장 개척중
인니 전지역 (200대 이상 설치) 풍부한 노하우
영업점: 롯데에비뉴 5층, 땅그랑, 버카시
신속한 A/S팀 운영중
이용료없이 무제한 사용가능

직원 복지용(다용도) 스크린룸 활용

다양한 골프연습 모드가능
직원간 화목한 스크린게임 이용
영화감상/노래방/운동경기 관람
온라인 화상회의 가능



WA / Call : 0815 7456 8000 (Mr Lee Jung Gi)
Email : vgolf03651@gmail.com
Kakaotalk : golf 03651

인니 제조업 스마트화 가속... 韓 기계·자동화 기업 수출 '청신호'



▲인도네시아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정책을 바탕으로 자동차·전자 등 5대 중점 산업의 제조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국가적 차원의 인공지능(AI) 전환 정책을 바탕으로 스마트 제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KOTRA가 최근 발간한 '인도네시아 AI 전환 동향과 우리 기업 진출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25년 990억 달러로 동남아시아 주요국 중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에는 1,800억~3,400억 달러 규모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전자, 기계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 제고와 품질 관리를 위한 AI 자동화 솔루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국내 기계 및 자동화 설비 기업들의 선제적인 시장 공략이 요구된다.

동남아 최대 디지털 경제 인니,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으로 스마트 제조 드라이브

인도네시아 정부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Making Indonesia 4.0)' 정책을 통해 식음료, 섬유·의류, 자동차, 화학, 전자 등 5대 중점 산업의 스마트화 및 디

지탈 전환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이들 5대 산업은 인도네시아 전체 제조업 GDP의 60%, 수출의 65%, 고용의 6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최근 현지 제조 현장에서는 단순 자동화를 넘어 카메라 영상 기반의 품질 검사 및 공정 데이터 모니터링 솔루션이 우선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점차 기계 설비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예지보전과 에너지 효율화 영역으로 AI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글로벌 제조사를 앞다퉀 AI 자동화 도입... 현장 실증 사례 활발
실제 산업 현장의 지능형 자동화 도입 사례도 활발하다. 토요타(Toyota) 인도네시아 법인(TM-MIN)은 엔진 핵심 부품인 캠샤프트 검사 공정에 카메라가 장착된 장비와 AI 모델을 도입하여 제품의 미세 결함을 정밀하게 판별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아케보노 브레이크(Akebono Brake Astra Indonesia) 역시 AI 기반 생산공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 라인의 비효율과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 중이다.

또한, 식음료 제약 기업인 칼베 모리나가(PT Kalbe Morinaga Indonesia)는 기계 설비 모터에 진동 센서를 부착해 고장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스마트 팩토리 4.0'을 운영 중이며,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바탐 공장은 AI와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한 지능형 제조 체계를 구축해 세계경제포럼(WEF)의 등대공장(Global Lighthouse Network)으로 선정된 바 있다.

韓 기계·로봇 업계 진출 전략... '통합 솔루션 및 경량화'가 핵심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산업 동향은 고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스마트 제조, 공작기계, 로봇 자동화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활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단일 AI 기술 도입보다는 데이터 수집부터 예

측 분석, 기계 설비 유지 관리까지 아우르는 '문제 해결형 통합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높다. 예지보전, 디지털 트윈, 정밀 품질 검사(비전 AI), 첨단 로봇 제어 등의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현지 시스템통합(SI) 기업이나 통신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실증사업(PoC)을 전개한다면 시장 선점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지의 분산된 공정 데이터 환경, 지역별 통신 및 전력 인프라 격차, 시스템 운영 인력 부족 등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클라우드 중심의 무거운 시스템보다는 통신 환경이 열악한 제조 현장에서도 독립적으로 작동 가능한 경량형 솔루션을 제안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사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이다.

단순 설비 납품으로 한계... '투자 대비 수익(ROI)' 확실한 맞춤형 패키지로 승부해야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AI 전환은 단순한 IT 트렌드를 넘어 국가 산

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존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기계 부품의 정밀 가공이나 대규모 조립 공정에서 불량률을 낮추고 고가 장비의 가동률을 극대화하려는 요구가 거세다.

우리 기업들은 우수한 제조 자동화 구축 경험을 무기로 삼아, 투자 대비 수익(ROI)이 명확한 타겟 공정부터 공략해 점진적으로 수주 범위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KOTRA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제조 기업들은 AI 자동화 도입을 통해 불량률 감소와 생산 중단 리스크 방지 등 뚜렷한 재무 및 운영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기계·자동화 기업들은 단순한 설비나 범용 솔루션 납품에 그치지 않고, 현지 대형 플랫폼 및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 유지보수와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패키지 모델로 접근해야 실질적이고 성공적인 수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프라보워, 집권 2주년 앞두고 추가 개각 시사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오는 10월 집권 2주년을 앞두고 추가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장관 교체만으로 최근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경제·정치·법 집행에 대한 국민 불만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최근 서부자바 함발랑 사택에서 원로 언론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집권 2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2년이 지나면 각자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개각은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내각이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브릭스에서 발언하는 프라보워 대통령 [자료사진:대통령 폐북 갈무리]

서도 장관들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책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패 수사 등 법적 문제에 연루된 경우 교체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추가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최근 하락한 국정 지지율도 있다.

아리아 페르난데스 자카르타 국제전략연구소(CSIS) 연구원은 여

권을 지지하는 정당 소속 인사들이 내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요 정당 지도부에 속한 장관들을 교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으로서는 총선법 개정 등 향후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연립정부 내부의 지지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리아 연구원은 개각이 여론 개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정부 정책과 주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 대상에는 정부의 우선 정책 성과를 비롯해 경제·재정 운영, 일자리 창출, 식량·에너지 안보, 공공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PT. JASON LOGISTIC INDONESIA

글로벌 물류 전문 파트너

Your Professional Global Logistics Partner

장기적 비즈니스 성장을 함께하는 물류 파트너



Air Cargo



Sea Cargo



Warehouse



Customer Service

JASON 지사

중국: 상하이, 광저우, 선진, 샤이먼, 청도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대만/한국

Ruko Gading Kirana Blok C10 No.10, Kel. Kelapa Gading, Kec.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p: 021-45855919 | Email: cs.team@jli.kr

한국담당자: 박치성 +62 821 1210 0051 | 현지담당자: HENDRA +62 898 1142 2911

2026년도 KOGA 연회비 수입현황 (01/01~09/25)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일반사	찬조금
1	ANUGERAH ABADI BERSAMA	2026.01.28			5 JT	
2	WOO SHIN GARMENT	2026.01.28			5 JT	
3	KAHO INDAH	2026.01.28			5 JT	
4	CITRA UNGGUL PERKASA	2026.01.28	20 JT			
5	UNGARAN INDAH BUSANA	2026.01.28			5 JT	
6	LEADERS WORLD	2026.01.28			5 JT	
7	SEYANG ACTIVEWEAR	2026.01.28			5 JT	
8	GOLDEN GARMENTS	2026.01.29			5 JT	
9	DAE DONG	2026.01.29			5 JT	
10	YEONHEUNG MEGA SARI	2026.01.29			5 JT	
11	GAYA MAKMUR	2026.01.29			5 JT	
12	ING INTERNATIONAL	2026.01.29			5 JT	
13	INKORDAN	2026.01.30		30 JT		
14	JM TECH	2026.01.30			5 JT	
15	DASAN PAN PACIFIC	2026.01.30			5 JT	
16	TAE WON INDONESIA	2026.01.30			5 JT	
17	MUTIARA BUSANA INDAH	2026.02.02	20 JT			
18	MYUNG SEONG MACHINER	2026.02.04			5 JT	
19	DREAMWEAR	2026.02.04			5 JT	
20	TP.INC TRADING JAKARTA	2026.02.05		30 JT		
21	GAYA INDAH KHARISMA	2026.02.05	20 JT			
22	SOLVE IT	2026.02.06			5 JT	
23	OROM CONSULTING	2026.02.06	20 JT			
24	MULTI WELL EMBROIDERY	2026.02.09			5 JT	
25	KNH GAMINDO JAYA	2026.02.09			5 JT	
26	MUARA TUNGGAL	2026.02.09			5 JT	
27	PT.SCNIC	2026.02.09			5 JT	
28	LIMANTARA INDAH MAKMUR	2026.02.09			5 JT	
29	BLUE ROSE NARADO	2026.02.10			5 JT	
30	ANUGERAH ABADI MAGELANG	2026.02.10			5 JT	
31	MINU GARMENT SUKSES	2026.02.10			5 JT	
32	HANSOL PLEATS	2026.02.10			5 JT	
33	C- SITE TEXPIA	2026.02.11			5 JT	
34	WINNERS INTERNATIONAL	2026.02.12		30 JT		
35	PERMATA GARMENT	2026.02.12			5 JT	
36	RINA JAYA GARMENT	2026.02.13			5 JT	
37	MAJUEL	2026.02.13			5 JT	
38	GLOBAL BUSANA INTERNATIONAL	2026.02.13			5 JT	
39	SJ CONSULTING	2026.02.18			5 JT	
40	ZIBEN INDONESIA	2026.02.20			5 JT	
41	WOORI SUKSES APPAREL	2026.02.21			5 JT	
42	BINTANG GLOBAL ABADI	2026.02.23			5 JT	
43	PURNAMA ASIH SUR	2026.02.24			5 JT	
44	KG FASHION	2026.02.24			5 JT	
45	DONG JUNG INDONESIA	2026.02.25			5 JT	
46	YB APPAREL	2026.02.25			5 JT	
47	PT.ACE	2026.02.25			5 JT	
48	DOOSAN CIPTA BUSANA JAYA	2026.02.25		30 JT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일반사	찬조금
49	DONG IL	2026.02.26			5 JT	
50	SUKWANG INDONESIA	2026.03.05		30 JT		
51	HOKI MACHINE INDONESIA	2026.03.05			5 JT	
52	UNICORN	2026.03.06			5 JT	
53	DOORI LESTARI GARMENT	2026.03.10			5 JT	
54	JUN H INDONESIA	2026.03.10			5 JT	
55	HESED INDONESIA	2026.03.17	20 JT			
56	DONG YANG NISUSINDO	2026.04.01			5 JT	
57	BANGUN MAJU LESTARI	2026.04.09	50 JT			
58	DAYUP INDO	2026.04.13			5 JT	
59	IMPIAN ANUGERA LESTARI	2026.04.16			5 JT	
60	KARYA TRI ABADI	2026.04.25			5 JT	
61	JS JAKARTA	2026.04.30		30 JT		
62	HARAPAN GLOBAL APPAREL	2026.05.04			5 JT	
63	YONGJIN	2026.05.04			3,5 JT	
64	SUNGBO	2026.05.04			5 JT	
65	YURI INDO APPAREL	2026.05.04			5 JT	
66	GLOBAL TRIMS CREATOR	2026.05.05			5 JT	
67	PETRASAKTI MADYATAMA	2026.05.07		30 JT		
68	SEYOUNG INDUSTRY	2026.05.08			5 JT	
69	PT.SUCI PINTAK	2026.05.18			5 JT	
70	PT.KOTEK INDAH	2026.05.20			5 JT	
71	INDO BOX UTAMA	2026.05.20			5 JT	
72	HANSAE	2026.05.21		30 JT		
73	TA GLOBAL INDONESIA	2026.05.26			5 JT	
74	KOREA VILENE	2026.06.05			5 JT	
75	DK INTERNATIONAL	2026.06.08			5 JT	
76	SAM SAM JAYA GARMENT	2026.06.10			5 JT	
77	GREEN ON INDONESIA	2026.06.24			5 JT	
78	SEJIN GLOBAL INDONESIA	2026.06.26			5 JT	
79	DELTA MATE MAJALENGKA	2026.07.13			5 JT	
80	DONGSAN HOLDINGS	2026.07.30			5 JT	
81	KEUMKWANG SEMYU INDONESIA	2026.07.30	20 JT			
82	PARAN INTERNATIONAL	2026.08.28			5 JT	
83	PPF INDONESIA	2026.09.03			5 JT	
84	PELITA HARAPAN ABADI	2026.09.03			5 JT	
85	ISTANA GARMINDO JAYA	2026.09.04			5 JT	
86	PRESTASI UTAMA NYATA	2026.09.04			5 JT	
87	HAN SOLL	2026.09.07		30 JT		
88	TAE WON INDONESIA	2026.09.07				20 JT
89	BUMA APPAREL INDUSTRY	2026.09.07			5 JT	
90	HARINDO	2026.09.09			5 JT	
91	F1 LOGIX INDONESIA	2026.09.10			5 JT	
92	NOTOS	2026.09.16	20 JT			
93	WORLD STAR GARMENT	2026.09.17	20 JT			
94	SAMONE ABADI INDONESIA	2026.09.21			5 JT	
95	BANGUN MAJU LESTARI	2026.09.23				20 JT
96	YOUNG SHIN WORLD ZIPPER	2026.09.25			5 JT	

인니 8월 국가 세입 목표 65% 달성…재무장관, 예산 신뢰성 강조

인도네시아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 장관은 올해 8월까지 국가예산이 세입 증가와 함께 지출도 확대되면서 계획대로 집행되고, 재정적자도 통제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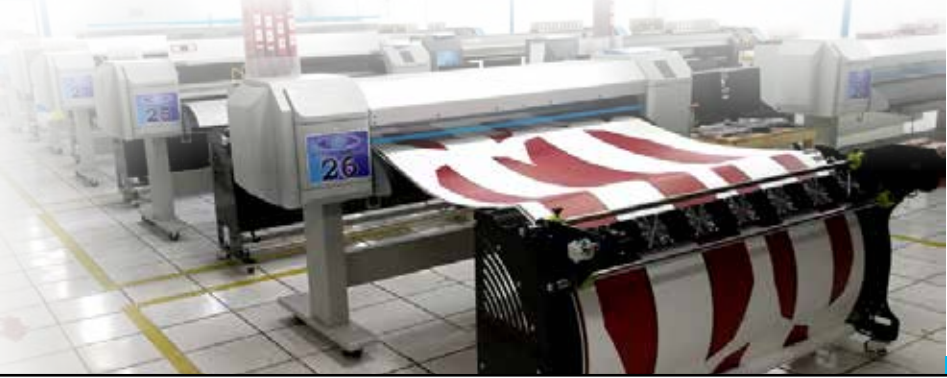
수아하실 장관은 18일 국가예산 (APBN) 기자회견에서 “8월 말까지 국가예산 집행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며, 기초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재정적자도 통제된 범위에 있다” 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17.1% 증가했으며, 정부 부처 및 기관 지출은 33% 늘어난 912조4천억 루피아를 기록했다. 국가 세입은 2,100조 루피아로 연

간 목표의 65%를 달성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5.4% 증가했다. 세수는 24.1% 늘었고, 비세수(PNBP)는 41.7% 증가한 435조1천억 루피아를 기록했다. 지난 한 달간 세입 실적이 개선되

면서 8월 말 재정적자는 240조1천억 루피아, GDP의 0.93% 수준으로 관리됐으며 기초재정수지도 흑자를 유지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재정적자가 GDP의 2.8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 용 상 : 0815 1902 4176

글로벌 수장들, 세계 확장 위해 한국 현장 행진다

코토팍시 · 무브 · 브롬톤런던, 신사 · 하남 · 성수서 잇단 행보
소비자 경험 · 커뮤니티 · 현지 파트너십으로 점점 확대

K컬처 확산과 빠른 소비 흐름, 성수 등 체험형 상권의 성장으로 한국 시장의 전략적 의미가 커지고 있다. 올해 해외 스포츠 · 아웃도어 ·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창업자와 CEO의 방한이 예년보다 눈에 띄게 잦아지고 있는 배경이다. 이들은 매장 오픈과 미디어 데이, 현장 인터뷰, 팝업 행사에 직접 참석해 브랜드 철학과 국내 전개 방향을 설명했다. 한국을 아시아 전개에 앞서 브랜드 콘셉트와 소비자 반응, 현지 파트너 역량을 함께 확인하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브랜드에 아시아 테스트베드이자 소비 흐름을 읽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무브코리아는 한국을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하는 전초기지”로 봤고 푸마코리아 역시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코토팍시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미디어 데이에서 정호진 넬슨스포츠 대표, 정인수 동인기연 회장, 스테판 제이콥 코토팍시 설립자, 린지 슐라스 코토팍시 CEO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정숙 기자

성수점을 “한국 소비자 반응을 다. 매장과 팝업은 제품 판매 공간을 넘어 브랜드 경험을 보여주는 무대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 파트너도 단순 유통을 넘어 현지 전개, 생산, 커뮤니티 운영까지 연결하

는 역할로 넓어지고 있다.

코토팍시는 신사동 플래그십 오픈을 계기로 해외 수장 방한과 국내 파트너십이 함께 부각된 사례다. 미국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코토팍시(Cotopaxi)는 지난 6월 1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한국 첫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앞두고 미디어 데이를 열었다. 스테판 제이콥 설립자와 린지 슐라스 CEO가 직접 참석했다. 다음 날인 6월 20일에는 신사동에 한국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다.

스테판 설립자는 한국 시장을 아직 열리지 않은 성장 시장으로 봤다. 그는 “한국에서 코토팍시의 브랜드 인지도는 아직 1%도 되지 않는다. 그만큼 성장 기회가 크다”고 말했다. 린지 슐라스 CEO는 “한국 소비자는 아웃도어에 진심이고 웰니스와 건강에도 관심이 많아 코토팍시에 잘 맞는 시

장”이라며 “넬슨스포츠라는 좋은 파트너를 만난 것도 한국 진출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말했다. 무브가 선택한 장소도 상징적이다. 호텔이나 일반 행사장이 아니라 러너 커뮤니티 카페에서 브랜드를 소개했다. 제품을 보여주는 동시에 실제 러닝 문화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니콜라이 CEO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스포츠 시장”이라며 “달리기 커뮤니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기능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보는 소비자가 많아 무브와 잘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성수는 해외 브랜드가 한국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는 대표 상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 메가스토어 성수는 방한 관광객 사이에서 K패션과 K뷰티를 중심으로 K푸드와 K팝까지 한국의 라이프스타일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필수 방문 코스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인도네시아 정부, 섬유산업에 Tax Holiday 재부여 검토

IKPI,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정부가 섬유 및 섬유제품(TPT, Tekstil dan Produk Tekstil) 산업에 대해 Tax Holiday(법인세 감면) 혜택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투자와 노후 생산설비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준비되고 있다. BPI Danantara의 CEO인 Rosan Roeslani는 그동안 Tax Holiday 및 Tax Allowance 혜택이 주로 신규 투자에 제공되어 왔으나, 정부가 현재 섬유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다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Tax Holiday나 Tax Allowance는 주로 신규 투자에 제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섬유산업의 경우 Tax Holiday를 다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Rosan은 9월 23일 수요일 대통령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섬유산업이 여전히 경쟁력 측면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산설비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있어 설비 교체와 기술 고도화를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osan은 정부가 국영은행(Himbara)을 비롯한 국내 은행들이 섬유산업에 다시 적극적으로 금융을 제공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섬유산업이 이른바 ‘사양산업(sunset industry)’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어 Himbara 및 기타 국내 은행들이 특히 노후화된 기계설비의 개선을 위한 자

금을 다시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섬유산업에는 재투자(re-investment)와 운전자본 추가 투입을 통해 추가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Airlangga 장관에 따르면 현재 섬유공장의 설비 가동률(utilization)은 약 75% 수준이다. 이는 생산능력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섬유산업은 사양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투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본의 추가 투입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Airlangga 장관은 또한 섬유 및 섬유제품(TPT) 산업이 전략산업이자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TPT 산업이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97%**이며, 약 4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섬유산업의 수출 규모는 약 **120억 달러(US\$ 12 billion)**에 이른다.

성장을 측면에서도 섬유산업은 5.6% 성장하여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가죽제품 및 신발산업은 8.2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TPT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 이외에도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류산업부터 하류 산업까지의 관세체계 조화, 원자재 수입 및 조달 편의 확대, 그리고 국내 의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 불법 수입품 및 중고의류 압축화물(balpres)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된다.

Rosan은 정부가 섬유산업의 상류부터 하류까지를 하나의 지역에 통합하는 섬유산업 통합단지 조성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산업 통합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우수한 기술의 도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 상류부터 하류까지 섬유산업을 통합할 수 있는 특별지역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우수한 기술을 활용하면서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섬유산업을 사양산업이 아닌 전략적 제조업 및 고용창출 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Tax Holiday 재도입, 금융지원 확대, 노후설비 교체, 원자재 조달 개선 및 산업단지 통합 등을 통해 TPT 산업에 대한 투자와 재투자를 촉진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PT. BNG Consulting 김재훈 대표



PT. Indokon Multi Sarana는 실내 · 실외 비디오트론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No.1 선도 기업으로, 인테리어 시공 전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T. Indokon Multi Sarana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트론 솔루션 & 인테리어 시공
전문 기업

PT. Indokon Multi Sarana는 **정밀한 기획, 프리미엄 자재, 그리고 전문적인 시공 기준**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미적 가치, 높은 완성도를 갖춘 비주얼 및 공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선명한 디스플레이, 내구성 높은 시스템, 그리고 철저한 납기 준수를 실현합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업 단지, 오피스, 상업 공간, 공공 시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www.indokonmultisarana.com
(+62)21-2263-2551
Jakarta, Indonesia

인도네시아 노동계, 프라보워 대통령에 ‘11개 항 요구 서한’ 전달… 자카르타 도심 대규모 집회 돌입

두둥 비서실장 접견… 친노동 법안 개정·아웃소싱 착취 중단 등 촉구
정부 “노동자 권익 보호 의지 확고… 주무 부처 및 국회와 해결책 모색”
18개 노조 연대 분다란 HI 시위 전개, 국회 앞 릴레이 후속 투쟁 예고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주요 노동단체 대표단이 대통령궁을 예방해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을 향한 11개 핵심 요구안을 전달했다. 9월 24일 자카르타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 직전 성사된 이번 면담을 통해 정부는 대화 의지를 표명했으나, 노동계는 요구안 관철을 위해 국회 앞 릴레이 시위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26년 9월 24일, 전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SPSI), 인도네시아 노동조합동맹총회(KASBI) 등으로 구성된 노동단체 대표단은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두둥 압두라흐만(Dudung Abdurachman)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서실장(KSP)을 면담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공식 요구 서한을 제출했다. 이번 접견은 자카르타 중심부인 분다란 H(호텔 인도네시아 로터리) 일대에서 예정된 대규모 노동자 집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면담 직후 두둥 비서실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오늘 노동단체 대표단을 직접 접견하여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이라는 공식적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노동조합 지도부의 뜻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가 전달한 11개 요구안은 관련 소관 부처와 국회(DPR)에 빠짐없이 전달될 것이며, 구체적인 정책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위대를 차단하는 경찰 (Sumber foto: Istimewa)

아울러 두둥 실장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노동권 보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프라보워 대통령께서는 노동자의 보호와 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며 “지난 2026년 5월 1일 노동절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는 노동자의 권익을 수호할 것임을 천명하신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항상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제출된 11개 요구안의 핵심은 친노동자 성향의 법 개정, 고용 보장 및 무분별한 외주 용역(아웃소싱)·계약직·수습 및 인턴십 제도의 악용 방지, 생활 물가를 반영한 적정 임금 보장, 급증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퇴직금 수급권 보장 및 결사의 자유 확대 등”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대 투쟁을 이끄는 전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 화학·에너지·광산 노동조합연맹(PP FSP KEP SPSI)의 R 압

둘라 위원장은 이번 집회가 광범위한 연합전선으로 구축되었음을 역설했다. 압둘라 위원장은 “우리는 18개 전국 단위 노조 총연맹과 147개 산별 연맹이 결집한 ‘인도네시아 노동투쟁 대연합’ 소속”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국가 최고 통치권자인 공화국 대통령께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담긴 청원서를 공식 전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서한 전달에 그치지 않고 예정된 장외 투쟁을 강행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동맹총회(KASBI)의 수나르노 위원장은 시위대가 자카르타 주요 교통 결절점인 심팡 스망기(Simpang Semanggi)에서 집

결해 분다란 호텔 인도네시아(H) 구역까지 평화 행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투쟁은 향후 국회 입법 일정에 맞춰 장기화될 전망이다. 수나르노 위원장은 “분다란 H 인근에 모인 조합원들에게 청원서 전달 결과를 공유하고 대정부 투쟁의 동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어 9월 2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후속 시위를 진행하고, 나아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스니안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집중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연속 집회 일정의 배경에 대해 “10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관련 법안의 가결 처리가 시도될 것이라는 신빙성 있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전달된 노동계 11대 핵심 요구안 친노동자 성향의 노동보호법 제정 고용 안정성 확보 및 착취 방지: 무분별한 아웃소싱(외주) 제도 폐지, 계약직 노동자 착취 중단, 수습·인턴십 제도의 탈법적 악용 근절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적정 임금 보장: 투명성이 결여되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임금

산정 특정 수치 계수 제도 폐지 **신종 노동 형태 및 취약 직군 보호:** 언론 노동자,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ojol) 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기후 정의 전환에 따른 직간접 피해 노동자 대책 마련 **고용권 보장:** 법정 퇴직금 수급권의 실질적 보장 및 기업의 일방적 정리해고(PHK) 방지 대책 강구 **노동권 확대:** 노동조합의 교섭 역량 강화 및 헌법상 결사의 자유 보장 **산업안전 및 보건 환경 개선:**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자 복지를 국가 경제 발전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격상 **사법 집행력 강화:**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엄격한 법 집행 **여성 노동권 보장:** 증빙 서류(진단서 등) 제출 의무를 강제하지 않는 무조건적 생리휴가 보장을 포함한 여성 노동자 전반의 권익 신장 **취약계층 포용 고용:** 장애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의무적 일자리 기회 제공 및 차별 철폐 **산업 전환기 미래 직무 역량 강화:** 기술 혁신 및 자동화 중심의 산업 재편에 발맞춘 인도네시아 노동자 맞춤형 숙련도 향상(업스킬링) 및 직무 재교육(리스크링) 국가 지원 프로그램 시행 (한인포스트)

월간 KOGA지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 봉제신문 KOGA지는 봉제 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 1, 개요** 주요대상 : 봉제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봉제신문 KOGA지(월간)
1) KOGA지는 봉제협회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3002 9090/91 0821 1122 8827 (Mr. Kang) 이메일 : khong3000@gmail.com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탁상용 카렌다 벽걸이 카렌다 가족 카렌다 동아리, 친목 카렌다



2027 달력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7년(丁未年)을
미리 준비하세요!

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CREATIVE DESIGN COMPANY

SILK ROAD

제작 의뢰 : 0858 9060 0962, 0821 1122 8827
021 5010 4614 / 15
pt.kwanggaeto@gmail.com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 가족카렌다, 동아리, 친목카렌다 제작시 최소수량 5권부터 가능



베트남 섬유 및 의류 산업 8개월 만에 약 270억 달러 수익

2025년 같은 기간 대비 1.6% 증가,
주요 수출 부문으로서 입지 유지



2026년 첫 8개월 동안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수출액은 약 269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2025년 같은 기간 대비 1.6% 증가한 수치다.

섬유 및 의류 수출은 여전히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첫 8개월 동안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수출액은 약 269억 달러에 달해 2025년 같은 기간 대비 1.6%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로 섬유 및 의류 산업은 베트남의 주요 수출 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출액은 불안정한 국제 시장 상황 속에서도 해당 산업의 생산 및 수출 활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해 왔음을 보여준다.

연말에는 수요와 성수기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 활동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산 직물과 의류는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고있다.

베트남은 높은 수출액을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제품은 전 세계 여러 시장으로 꾸준히 수출되고 있다. 올해 첫 8개월 동안 일본의 수출액은 27억 9천만 달러, 한국은 18억 6천만 달러, 네덜란드는 약 1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거의 10억 달러에 달했다.

캐나다(8억 440만 달러), 캄보디아(6억 6840만 달러), 영국(6억 2360만 달러), 독일(5억 8300만 달러) 등 여러 다른 시장에서도 상당한 수출액을 기록했다.

다양한 시장으로의 수출 유지는 베트남 섬유 및 의류 산업이 위험을 분산하고 제품 판로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 8개월 동안 상당한 수출량을 기록한 만큼, 남은 기간의 실적이 2026년 산업 수출 전망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VIETNAM.VN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세기

TEL: +82-2-465-6308/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전상규 법인장: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김재훈의 세무상식

인도네시아 세무대리 제도의 새로운 변화 PMK 55/2026과 ‘Pihak Lain’ 세무대리인의 제도화



김재훈 대표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6년 8월 24일 재무부령 PMK No. 55 Tahun 2026(PMK 55/2026)를 시행하였다. 정식 명칭은 Konsultan Pajak dan Pihak Lain yang Bertindak sebagai Kuasa Wajib Pajak, 즉 ‘세무컨설턴트 및 납세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기타인’에 관한 규정이다.

이번 규정은 단순히 기존 세무컨설턴트(Konsultan Pajak) 제도를 일부 수정한 정도로 보기 어렵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명확한 관리체계 밖에 있었던 Pihak Lain, 즉 세무컨설턴트가 아니면서 납세자를 대리하는 사람을 공식적인 자격·등록·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2026년 7월 시행된 PMK 44/2026이 ‘누가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를 규정하였다면, PMK 55/2026은 그중 Pihak Lain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떻게 등록하며, 어떤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감독받는가를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세무대리인으로 새롭게 제도화된 ‘Pihak Lain’ PMK 55/2026은 Pihak Lain을 Konsultan Pajak과 가족을 제외한 사람으로서 Surat Keterangan Terdaftar(SKT)를 취득하고 납세자로부터 세무대리인으로 지정 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세무대리인의 구조는 크게 세무컨설턴트(Konsultan Pajak), 등록된 기타 세무대리인(Pihak Lain), 그리고 일정 범위의 가족(Keluarga)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변화는 Pihak Lain이 더 이상 단순히 ‘회사 직원이니 까’, 또는 ‘Brevet 자격증이 있으니 까’ 당연히 외부 납세자의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려면 법령이 정한 역량과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별도의 전문영역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핵심은 SKK와 SKT

PMK 55/2026에서 Pihak Lain 제도를 이해하는 핵심 용어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SKK(Surat Keterangan Kompetensi), 즉 세무 분야의 역량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이고, 두 번째는 SKT(Surat Keterangan Terdaftar), 즉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되었다는 등록증명이다.

SKK는 세무 분야 역량시험(uji kompetensi di bidang perpajakan)에 합격하여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SKK는 A, B, C의 세 등급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도 달라진다.

A등급은 기본적으로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되, 인도네시아와 조세조약(P3B)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는 개인은 제외된다.

B등급은 일반 개인 및 법인 납세자까지 확대되지만, 외국인 투자법인(PMA), 고정사업장(BUT), 그리고 조세조약 체결국에 거주하는 개인·법인은 제외된다.

C등급은 이러한 제한 없이 모든 개인 및 법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상당수 한국계 현지법인이 PMA 법인이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납세자를 대리하는 경우 단순히 SKT 보유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SKT의 등급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급인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SKT의 유효기간은 3년

Pihak Lain이 역량시험을 통과하여 SKK를 취득하면 그와 동일한 등급의 SKT가 함께 발급된다. SKT는 DJP(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다.

SKK 역시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갱신을 위해서는 만료 전에 ujian penyegaran, 즉 보수·갱신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따라서 한번 자격을 취득하면 영구적으로 세무대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유지하도

록 하는 제도로 변경된 것이다. **Brevet만 있으면 세무대리가 가능한 시대의 변화**

이번 제도 변화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과거에는 회사의 세무담당자나 세무법인 직원 등이 Brevet 등 일정한 세무 관련 자격이나 학력을 근거로 납세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PMK 44/2026과 PMK 55/2026이 함께 시행되면서 세무대리인의 ‘kompetensi’를 보다 명확하게 제도화하였다.

PMK 44/2026에 따르면 Pihak Lain이 세무대리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역량은 SKT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PMK 55/2026은 다시 그 SKT를 취득하기 위한 SKK와 역량시험, 등급 및 감독체계를 구체화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Brevet 보유 = 세무대리 자격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법적인 의미의 Kuasa Wajib Pajak로 활동하는 것이라면 SKT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세무법인 직원들에게도 중요한 변화

예를 들어 세무컨설팅 회사 대표가 정식 Konsultan Pajak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고객사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직원의 자격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반면 모든 실무행위를 반드시 세무대리인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PMK 44/2026은 정식 세무대리인이 자신의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Surat Penunjukan, 즉 지정서를 통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대리 행위’와 단순한 ‘서류 제출·수령 등 의 보조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세무컨설팅 회사에서는 누가 고객사의 정식 Kuasa가 될 것인지, 누가 내부 보조업무를 담당할 것인지, 직원 가운데 누구에게 SKK·SKT를 취득하게 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인력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Pihak Lain도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다

PMK 55/2026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Pihak Lain을 단순히 등록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감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DJP는 Pihak Lain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가 있는 경우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제재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행정제재에는 **SKT의 정지(pembekuan)**와 **SKT의 취소(pencabutan)**가 포함된다. 특히 이러한 제재가 반드시 단계적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반의 내용에 따라 곧바로 더 무거운 제재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Pihak Lain도 앞으로는 Konsultan Pajak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납세자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정한 전문성과 책임을 부담하는 tax intermediary로 관리하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다.

맺음말

PMK 55/2026은 인도네시아 세무대리 제도가 한 단계 더 전문화되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Konsultan Pajak 중심으로 세무전문가 관리제도가 운영되었다면, 앞으로는 Konsultan Pajak뿐만 아니라 Pihak Lain까지 SKK와 SKT를 기반으로 자격·등급·유효기간·감독 및 제재의 체계 안에서 관리하게 된다.

세무업무가 Coretax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산화되는 것과 동시에 세무대리인의 자격과 책임 역시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세무·회계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와 세무전문가들은 이번 제도를 단순한 자격증 제도의 변경으로 보기보다는, “누가 납세자를 공식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세무대리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정

- PMK No. 55 Tahun 2026
- Konsultan Pajak dan Pihak Lain yang Bertindak sebagai Kuasa Wajib Pajak
- PMK No. 44 Tahun 2026
- Persyaratan untuk Menjadi Kuasa di Bidang Perpajakan dan Tata Cara Pelaksanaan Hak dan Pemenuhan Kewajiban Kuasa di Bidang Perpajakan

※ 본 기고문은 관련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C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자문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간담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 TEL : 021 522 2739
- kimjhoon@bngconsulting.co.kr

베트남 섬유·의류業 ‘구인난’ 심화 호찌민 구인 3558명에 구직자 1420명…임금·채용 장려금 올려도 총원 난항

지방 산업단지 확대·젊은층 선호 변화 영향…자동화에도 인력 의존 지속

베트남 섬유·의류 생산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수출 생산기지가 밀집한 호찌민에서는 의류·섬유·가족·신발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에 비해 구직자가 크게 부족해 기업들이 임금과 채용 장려금을 높이며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현지 고용시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호찌민 지역 의류·섬유·가족·신발 업종의 구인 수요는 3558명인 반

면 구직자는 1420명에 그쳤다. 구직자는 필요한 인원의 약 40% 수준으로, 구인 수요와 구직자 간 격차는 2138명에 달했다.

구인 수요가 구직자를 크게 웃돌면서 기업들은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다.

호찌민 수출 의류업체 비엠흥(Viet Hung)은 지난해부터 봉제 생산라인에 약 200명을 추가 채용하려 했지만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회사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월 약 1300만동이다.

PPJ그룹도 올해 초 신규 근로자 유치 장려금을 지난해보다 120만동 늘어난 1인당 360만동으로 책정했다. 숙련 봉제

인력을 소개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두 배인 100만동으로 올랐다. 지난해 약 1000만동이던 평균 월소득도 올해 각종 상여금을 제외하고 1100만동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력 부족은 이어지고 있다. 지방에 산업단지가 늘면서 호찌민으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줄었고, 일부 젊은 층은 하루 8시간의 고정적인 공장근무보다 근무시간이 유

연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섬유의류협회(VITAS)는 노동력 부족을 업계의 주요 병목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동화와 디지털화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봉제 등 노동집약적인 공정은 여전히 사람의 작업 비중이 높아 인력 확보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출처 : 국제섬유신문

섬산련, 제1회 ‘섬유파션 산업올림포럼’ 성료

섬산련, 제1회 ‘섬유파션 산업올림포럼’ 성료
산업·학계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섬유패션산업의 인재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 이하 섬산련)는 오는 9월 17일(목) 오후 2시 섬유센터 17층 스카이블룸에서 ‘인공지능 전환(AI) 시대, 섬유패션산업의 인재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산업올림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섬유패션산업의 직무와 인재상에 가져올 변화를 살펴보고, 산업현장의 AI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와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섬유패션 업계, 학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포럼은 AI 인재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섬유패션 기업의 AI 활용사례 발표, 미래 인재육성 방향을 논의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초강연에 나선 변형균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는 “AI는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조직적 대전환”이라고 강조하며, 과업의 방향을 설계하고 AI 판단을 검증하여 주체적인 선택하는 역량이 AI 시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전문가 발제에서는 AI 시대에 필요한 섬유패션 인재의 역량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제시되었다. 김광일 클로버추얼패션 부사장은 “AI 시대에도 인간에게 남는 핵심 역량으로 ‘취향과 디자인을 결정하는 감성’, ‘무엇을 선택하고 버릴지 판단하는 능력’을 꼽으며, 개별 기술을 넘어 섬유패션산업의 전 공정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석 W컨셉 팀장은 AI가 수많은 선택지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환경에서는 특히 결과를 선별하고 기준을 세우는 ‘판단’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류인식 제너럴아이디어 이사는 단순히 AI 툴을 잘 다루는 것을 넘어 업무 프로세스의 병목과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점에 AI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선영 건국대 교수는 “AI는 손끝에서 검증된다”라며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과 함께 소재의 특성을 이해하고 실제 패션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천

형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 AI가 고도화 될수록 오히려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 최종 판단력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AI가 주니어 인재의 경험 축적과 성장을 대체하지 않도록 산업계의 재직자 훈련과 대학의 현장 중심 교육을 연계하고, 산업과 교육 현장이 함께 새로운 인재육성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섬산련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AI가 섬유패션산업의 현장과 직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야 할지를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논의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AI 시대에 부합하는 섬유패션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섬유제조·패션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글로벌 패션기업의 AI 동향과 산업의 인재육성 방향 등을 담은 ‘AI 시대 패션산업의 인재육성방안’ 리포트를 섬산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기업과 교육기관 등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ISC(Industrial Skills Council) : 고용노동부소관, 21개 산업 분야 운영

Awake NY, FW26 ‘Cold World’로 뉴욕 스트리트 스타일에 경의를 표하다



트랙수트와 풋볼 저지, 퍼 소재와 가죽을 겹쳐 입으며 뉴욕 특유의 겨울 워드로브를 완성한 홈타운 헌정 컬렉션. Awake NY가 2026년 가을·겨울 시즌 ‘Cold World’를 통해 고향인 뉴욕으로 시선을 돌린다. 뉴욕과 그 거리에서 빚어진 독특한 스타일에 바치는 헌정으로 기획한 컬렉션이다. 도시를 상징하는 색채와 그래픽, 일상적인 시각 언어에서 영감을 얻어 뉴욕식 차림새를 정의하는 개성을 담아냈으며, 특히 추운 날씨에 어울리는 레이어링에 주목했다. 이번 시즌 라인업은 한데 매치하기 좋은 세련된 트랙수트, 헤비

웨이트 후디, 운동복 감성의 풋볼 저지, 질감이 돋보이는 니트웨어, 존재감 있는 퍼 아우터웨어로 구성됐다. Awake NY의 상징적인 스타 모티프를 새긴 트랙재킷부터 서로 다른 세 가지 카모플라주 프린트로 완성한 트라이컬러 집업 후드 재킷, Vanson Leathers와 협업해 제작한 브랜드의 최신 스키텐 레더 재킷까지 다양한 아이템이 눈길을 끈다. FW26 컬렉션의 첫 번째 드롭은 현재 브랜드 뉴욕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2026년 9월 26일부터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더 폭넓게 판매된다. HYPEBEAST



COSMO www.cosmofamily.com



GFRP WIREMESH



GFRP REBAR

더 가볍게, 더 강하게.
인도네시아 최초 SNI 인증 GFRP 보강근 제조사.
부식 없는 철근 대체 솔루션
Cosmo GFRP Indonesia.

Office : Menara Bidakara 1, 21st Floor, Unit 2152 & 2156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71-73 Kelurahan Menteng Dalam, Kecamatan Tebet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Factory : Kawasan Industri Suryacipta City of Industry, Jalan Surya Madya XIV, Kavling I-67A3, Kabupaten Karawang, Provinsi Jawa Barat 41362
Tel. : +62 811 9630 8805
Email : jaydentyp@cosmogfrp.co.id

제 4회 모로코 섬유·패션 전시회 (Textile Series of Exhibitions 2026) 개최 안내

1.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제4회 모로코 Textile Series of Exhibitions 2026
— 동시개최: 제23회 Maroc in Mode (MIM) Show 2026
— 개최기간: 2026년 11월 3일(화) ~ 11월 5일(목)
— 개최장소: 카사블랑카(Casa-blanca), 모로코
— 주 최: AMITH(모로코 섬유·의류산업협회), CEMS-Global USA 공동 주최
— 홈페이지: www.cems-textileseries.com / www.mim.org.ma

2. 전시회 소개

Textile Series of Exhibitions 2026은 모로코 섬유·의류산업을 중심으로 섬유기계, 원사, 원단, 부자재, 화학제품 및 관련 기

술·솔루션 기업이 참가하는 국제 비즈니스 전시회입니다. 모로코의 섬유·의류 제조업체 및 수출입 기업, 브랜드, 바이어, 유통업체 등 산업 관계자와의 비즈니스 교류를 통해 현지 시장 진출과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제23회 Maroc in Mode (MIM) Show 2026과 동시에 개최되며, 모로코의 섬유·의류 제조 역량과 글로벌 공급망 관련 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3. 주요 전시 분야

— 섬유기계 및 생산설비
— 원사 및 섬유 소재
— 원단 및 직물
— 의류 부자재 및 액세서리

— 섬유·의류 제조 관련 화학제품

— 섬유산업용 기술 및 솔루션
— 기타 섬유·의류산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

4. 참가 및 참관 관련 문의

AMITH Association Marocaine des Industries du Textile et de l' Habilleme

홈페이지: www.amith.ma

전화: +212 (0) 522 942084 ~ 942085

담당자: Anass El Ansari, President of AMITH

이메일: communication@amith.org.ma

전시회 홈페이지: www.cems-textileseries.com

2027 미국 뉴욕 섬유 춘계 텍스월드 전시회 (Texworld NYC 2027 S/S) 참가 신청 안내

다가오는 2027년 1월 미국 뉴욕 섬유 춘계 텍스월드 전시회(Texworld NYC 2027 S/S) 참가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Texworld NYC 2027 S/S 전시회

에는 별도의 한국관을 구성·운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시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개별 참가 신청을 통해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참가를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아래 전시 주최측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부스 참가, 참가비 및 신청 절차 등 전시회 참가와 관련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Messe Frankfurt, Inc. Esther Kim, Sales Manager(esther.kim@usa.messefrankfurt.com / +1 678-564-6310)

*메쎈프랑크푸르트코리아 김승수 팀장 (sam.kim@korea.messefrankfurt.com, hellocity13@gmail.com / 010-3367-3149)

기타문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전시마케팅실 조민석 대리(glen.cho@kofati.or.kr / 02-528-4054)

[참고]

전시명칭 : Texworld NYC 2027 S/S

전시장소 : Javits Center, New York, USA

전시일정 : 2027년 1월 19일(화) ~ 21일(목), 3일간

홈페이지 : <https://texworld-usa.us.messefrankfurt.com/new-york/en.html>

※ Texworld NYC는 미국 동부를 대표하는 글로벌 섬유·소재 소싱 전시회로, 원단·섬유·부자재 등 다양한 제품군과 함께 지속가능 소재, 혁신 소재 및 트렌드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케처스, 에어리 2.0 다운 재킷 출시



스케처스코리아가 겨울 아우터 '에어리 2.0 다운 자켓'을 선보인다.

스케처스는 이번 시즌 활기차고 건강한 이미지의 모델 안소희와 함께 다채로운 아우터를 선보이며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특히 공기처럼 가볍다는 의미의 '에어리 2.0 다운 자켓'은 가벼운 무게감과 포근하게 감싸는 착용감으로 올 겨울 브랜드 대표 상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새롭게 공개한 에어리 다운 캠페인 영상은 '편안함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활용해 편안함이 주는 가치를 강조하고자 했다. 날씨가 추운 겨울 철에는 밖에 나가기 보다 집에 머무르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추운 날씨에 집에서 이불을 둘러쓰고 있던 모델 안소희가 우연찮은 계기로 야외에 나와 겨울을 즐기는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을 통해 '에어리 2.0 다운 자켓'의 활동성과 보온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유행하는 밈인 '어? 나 이런 거 좋

아하네'를 스케처스만의 무드로 유쾌하게 풀어 고위크6 캠페인에서 사용한 '어? 나 걷는 거 좋아하네'를 '어? 나 겨울 좋아하네'로 확장한 것이 눈에 띈다.

이를 통해 포근하면서도 가벼워 활동성이 높은 '에어리 2.0 다운 자켓'을 입고 야외에 나가 겨울의 즐거움을 만끽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했다.

캠페인 메인 제품인 '에어리 2.0 다운 자켓'은 찌단운 형태의 가벼운 무게감으로 활동성을 높였으며, 앞 지퍼에 벨크로를 적용해 보온을 강화했다.

뒤 네크라인 지퍼 내부에 후드 모자가 있어 취향에 따라 2가지 스타일링이 가능하고, 다양한 지퍼 포켓이 내장되어 있어 수납력이 우수하다.

여성용은 핑크, 스카이블루, 라이트그레이, 블랙 컬러 등 파스텔 톤의 다양한 컬러웨이 특징이다. 남성용은 라이트그레이와 블랙 2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릎까지 덮이는 기장감의 롱 버전도 함께 선보였다.

FASHION POST

KOWEB INDONESIA

홈페이지
제작 합니다

0812 9354 7052

yoona@koweb-indonesia.com
카카오 ID : rickyoon

2027년

카렌다 제작

021 5010 4614/5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등



한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SHINHW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안전협약’ 서명한 글로벌 패션기업, 300개 넘어섰다

방글라데시·파키스탄 2000여 공장, 340만 이상 근로자에 영향 공장 공개·독립검사·시정조치·근로자 신고까지...수주 핵심 변수

글로벌 패션업계의 공급망 안전 기준이 한 단계 높아지고 있다. ‘섬유·의류산업 보건·안전’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Accord for Health and Safety in the Textile and Garment Industry·이하 국제안전협약)에 참여한 글로벌 브랜드와 유통기업이 누적 300개사에 도달했다. 현재 서명사에는 H&M그룹, 인디텍스, 아디다스그룹, 마크&스펜서, PVH, C&A, 베스트셀러, 부후그룹 등 글로벌 패션·유통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기업은 26개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 연간 약 260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조달한다. 협약의 영향권에 들어간 공장은 2000곳 이상, 근로자는 340만 명 이상이다. 이번 300개사 돌파의 의미는 단

순히 ESG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었다는 데 있지 않다. 국제안전협약은 일반적인 자율 행동 강령이나 사회감사 프로그램과 달리 브랜드와 글로벌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다. 서명 기업은 공급망 공장을 공개하고 해당 공장이 독립적인 안전검사와 시정조치, 안전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시정조치가 경제적으로 가능하도록 공급업체와 거래조건을 협의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부담한다. 시정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와 개선 절차를 거쳐 거래를 중단하는 에스컬레이션 절차도 적용된다. 국제안전협약(International Accord)의 출발점은 2013년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붕괴 참사다.



▲글로벌 패션 300개사가 ‘안전협약’에 서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당시 1138명이 사망하고 2500명 이상이 부상하면서 글로벌 패션기업의 자가 소싱 구조와 공장 안전 책임이 국제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3년 협약은 3년 기본 기간에 추가 3년 자동 연장 구조를 도입했으며, 국가별 안전 프로그램(CSSP)을 통해 적용 지역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프로그램은 국제안전협약의 대표적인 성과 사례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246개 글로벌 브랜드·유통기업과 1759개 공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280만 명의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누적 공장 검사 건수는 7만 6009건, 확인된 안전 관련 지적사항은 29만 3852건이며 평균 시정조치 진척률은 81%다. 화재·전기·구조·보일러 등의 위험이 발견되면 공장은 시정조치계획(CAP)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다. 파키스탄에서도 협약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3년 도입된 파키스탄 협약은 2026년 갱신됐으며 2029년 말까지 연장될 수 있다. 2026년 8월13일 기준 142개 브랜드, 458개 공장, 52만7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

했으며, 이들 브랜드의 파키스탄 조달 수출액은 2024년 35억 달러에서 2026년 7월 45억 달러 이상으로 늘었다. 당시까지 초기 안전검사 449건, 후속검사 207건, 특별검사 55건이 실시됐고, 117개 공장의 보일러 240기 이상에도 안전검사가 진행됐다. 한국 섬유패션업계에도 영향이 적지 않다. 특히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 생산법인이나 협력공장을 두고 글로벌 브랜드에 납품하는 OEM·ODM 기업은 공장 공개, 안전검사, 시정조치, 근로자 교육·신고체계를 글로벌 수준 관리의 핵심 항목으로 봐야 한다. 향후 협약이 스리랑카·모로코·인도 등 다른 생산국으로 확대되고 근로자 신고 범위가 산업 안전에서 인권 실사 영역으로 넓어질 경우, 공장 안전은 ESG 부가항목이 아니라 가격·품질·납기와 함께 글로벌 소싱의 기본 거래조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INDONESIA OFFICIAL DISTRIBUTOR

경원기계공업(주) 인도네시아 직영대리점

KYUNGWON AIR COMPRESSOR — OFFICIAL GENERAL DISTRIBUTOR FOR INDONESIA

에어 컴프레서



(한국본사) 인니직영대리점 인증서

30+

30년간 축적된
압축공기 기술력



100%

정품부품
인니전지역 A/S가능



이 광 선 TEL 0812 100 77732
김 병 남 TEL 0852 8834 7666



WEBSITE
kwcompressor.id